

빅토르 위고의 세계주의*

이산호
중앙대학교

Abstract

The Cosmopolitanism of Victor Hugo

Lee, San-ho

Victor Hugo was opposed to the theory of art for art's sake. He argued that artists must be engaged in reality, because art has a political and social mission. This view account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idea of art participation or art for progress in his works. So the theme of the oppressed is omnipresent in his work. The basis of all the literature of Hugo is associated with various struggles against dictators and oppressors. Hugo longed for the ideal of humanitarian cosmopolitanism and a Cosmopolitan Republic based on the rights of nationalities. The affirmation of the rights of nations is, for him, a sine qua non for the advent of this republic from the elimination of all wars and all the oppressions. First, he proposed establishing the United States of Europe. For hi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of Europe was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Cosmopolitan Republic. Then he proposed an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reover, Hugo hoped for humanitarian universalism based on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and the rights of nationalities.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 the world today, the cosmopolitanism of Hugo as a represent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of humanity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has great significance.

Keywords: Victor Hugo, Arts Participation, Social Contract, Cosmopolitanism,
World Republic

주제어: 빅토르 위고, 참여예술, 사회계약, 세계주의, 범세계적 공화국

I. 서론

오늘날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들 간의 거리를 현저하게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인류의 삶의 공간을 세계로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초국가적인 통합 체제의 출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의 국제적인 공동체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세계화는 근대 이후 인간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였던 국민국가의 위상을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나아가 국가적 정체성과 고유성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기존 구성원들은 새롭게 등장한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도전은 이제 몇몇 특정 국가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로 인하여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가 집단 내에서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인들은 비록 오늘날의 세계화와는 그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타자의 이해와 수용에 대한 성찰을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했었다. 15세기부터 비약적인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업적을 이룩했던 유럽들은 곧바로 해외 식민지 건설에 착수했고, 유럽중심주의적 확산론에 힘입어 제국을 완성했다. 식민지 건설은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발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본성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작크 카르티에 역시 이들을 영혼이 순수한 존재로 묘사했었다.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야만인에 불과하다고 치부되었던 그들의 현명하고도 행복한 삶이 선교사들과 탐험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럽에 전해졌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수용해야만 했다.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식해 왔다. 한편으로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야만인으로 치부하여 침탈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아메리카대륙에 유럽 각국의 식민지가 광범위하게 건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압제가 유발되었으며,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선량한 미개인(bon sauvage)’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선량한 미개인 신화는 18세기의 자연 상태와 자연인에 대한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종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선량한 미개인 신화를 통해서 유럽의 타락한 문명사회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모델을 찾으려했던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많은 작가들이 자아 숭배와 현실 도피라는 낭만주의적 열광에 빠져들었다면, 일부는 평화와 자유 수호라는 강한 정치적 신념을 표명하기도 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주창한 작가들의 선두에 빅토르 위고가 있었다. 그는 전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전쟁과 독재에 반대하고, 인본주의적 세계주의를 고무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동방시집』에서 모든 민족과 다양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역설했으며, 『정벌시집』에서는 공화주의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공표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주의자를 자임하며 범세계적 공화국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평화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라는 위고의 정치사상은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어온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정치사상이 그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밝혀졌다. 한편 그의 세계주의 역시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위고의 세계주의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화를 성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주의라는 위고의 정치사상을 고찰해 볼 것이다.

II. 참여예술과 시인의 역할

한 작가의 고유한 작품세계는 단지 작가의 정서적인 성향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에 의해서 형성된다. 작가 역시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동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작가는 사회와 대립하고 때로는 불화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꿈꾸기도 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대부분 18세기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당대를 지배했던 진보사상과 사회의 발전을 믿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현실에 좌절했고, 정치적 환멸에 따른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갖게 됐다. 그들은 억압과 전쟁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토로했던 것이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 사회를 재건하고,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샤또브리앙은 “미래에 사람들이 대중을 덕으로 인도하는 신앙을 미신이라고 비난한다면 결국 모든 범죄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¹⁾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의 몰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몰락을 진실로 두려워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광범위하게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비니가 중세를 그리워하고, 네르발이 중세와 고대를 넘나들고, 보들레르가 남극과 고대를 동경한 것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참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티에, 르콩트 드 릴르, 보들레르, 말라르메, 베를렌느 등 파르나스와 상징주의의 시인들 역시 역사적인 격변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탈 이념적이고 내면적인 문학세계만을 추구했다. 그들은 예술은 삶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학적 형식미와 내면적 정서의 세계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이론을 표방하며, 예술 그 자체의 고유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은 현실에 무심했으며, 의도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외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위고는 이러한 현실도피적인 순수예술론에 동조하지 않았고, 삶을 위한 예술 혹은 진보를 위한 예술, 즉 참여예술을 추구했다. 1920년경까지 샤또브리앙이 아니면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낭만주의적 몽상에 몰

입했던²⁾ 그는 그 이후 격변기를 살면서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작품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술은 현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³⁾ 참여예술을 지향했던 위고는 예술가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문명을 전파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했다. 「시인의 기능」에서 위고는 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시인은 부도덕한 날에
더 좋은 날을 준비하러 온다.
시인은 유토피아의 인간이다.
발은 여기에 있으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바로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예언자 같이,
모욕을 당하던 혹은 찬사를 받던,
모든 것이 잡힐 수 있는 그의 손 안에,
그가 흔드는 횃불처럼
미래가 타오르게 해야 한다.”⁴⁾

이처럼 위고에게 시인은 영원한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미래를 예언하는 존재였다. 시인으로서 위고는 스스로를 독재에 저항하는 전사로, 사회 개혁가로, 세계주의자로, 미래의 예언자로 자각했고, 이러한 자각은 평생 동안 그의 삶과 문학을 이끌어간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의 유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으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교의가 탄생했던 시대였다.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여 형이상학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려 했던 파르나스와 상징주의의 시인들과 달리 위고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체계적으로 표명한 현실참여적인 문학세계를 추구했다.⁵⁾ 그는 작품을 통해서 압제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본주의적 인권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성난 다뉴브 강」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며 그리스와 터키의 평화로운 공존을 호소했고, 「모든 리라」에서는 원주민을 압제하는 식민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리마, 쿠바,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멜버른을 보라.
 너희는 세상을 문명화시킨다고 믿는가.
 너희가 추잡한 열기로 세상을 자극하는데도,
 너희가 은밀한 신의 거울인 세상의 호수를 탁하게 하는데도,
 너희가 세상의 순수함과 숲을 능욕하는데도,
 너희가 숲에서, 동굴에서, 강가에서
 총기 가득한 눈을 가진 너희의 형제들을, 미개인을
 무수한 색으로 채색된 이 태양의 아이를 몰아내는데도...”⁶⁾

위고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압제를 유발하고, 원주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유럽중심주의적인 식민주의에 반대했다. 그는 비유럽 세계의 진보는 유럽 문명의 확산의 결과라는 유럽중심주의적인 확산론을 부정했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고가 필생 간직하고자 했던 것은 인본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제국의 독제와 압제를 고발하는데 앞장섰으며, 유럽중심주의적인 식민주의 대신 형제애에 입각한 인본주의적인 세계주의를 주창했다.

III. 세계주의와 사회계약 모델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위고를 정통왕조 지지자에서 차례로 대혁명 사상의 옹호자로, 자유주의자로, 공화주의자로, 세계주의자로 변모시켰다. 젊은 시절 열혈 왕당파로서 왕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그는 1948년 2월 혁명 후 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5년 전에 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다. 오늘날 나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리라. 왜냐하면 내 자유가 분출하고, 내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고무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⁷⁾

위고의 정치적 견해는 변화했어도 그의 인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조만큼은 변화하지 않았다. 제정과 왕정 그리고 공화제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

한 바 있는 위고는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공화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했다. 그는 보통선거가 압제에 신음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되돌려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⁸⁾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독재정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격렬하게 이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자가 되었다.⁹⁾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루이 나폴레옹 정부의 기만적 민주주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곧이어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선언하자, 열혈 공화주의자로 변모한 위고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다. 그는 벨기에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징벌시집』을 통해서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그는 결국 벨기에에서도 추방되었고, 영국령 저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위고는 자신의 신조를 충실하게 지켜나갔다. 한편 제정이 그를 사면했으나 그는 프랑스에 자유가 오지 않으면 자신도 귀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¹⁰⁾

한편 위고는 인류의 유토피아적 미래를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과학의 진보와 정의의 종국적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¹¹⁾ 그리하여 『세기의 진설』에 수록된 「충만한 하늘」에서 그는 인류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낙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가? 태양의 옷을 입고, 이 배는 항해를 하네,
성스럽고, 순수한 미래로, 덕을 향하여,
 빛나는 과학을 향하여,
채찍 없는 곳으로, 자비로운 용서를 향하여,
 풍요와 고요와 웃음과 행복한 인간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이 배는 항해한다.

이 영광스러운 이 배는 항해하네,
정의와 이성과 형제애를 향해
경건하고 신성한 진리를 향해
 속임수도 없고 배일도 없는,
달콤한 관계로 마음을 묶어주는 사랑을 향해,

정의, 위대함, 선, 아름다움을 향해...
 그대들은 잘 알고 있지,
 결국 이 배는 별에 오른다는 것을.”¹²⁾

이처럼 위고가 꿈꾸던 미래의 유토피아는 과학적 진보 아래 인본주의적 형제애 충만한 정의롭고도 풍요로운 세상이었다. 그것은 지역도, 국가도, 민족도, 종교도 초월한 세상이었다. 바로 이것이 위고가 주창한 세계주의의 근본 이념이다. 한편 많은 프랑스인들이 위털루 전쟁의 굴욕감으로 인하여 1815년부터 국가주의로 기울어갔고, 독재자 나폴레옹 황제를 영웅시했을 때에도 그는 세계주의를 위하여 이를 초월할 수 있었다.

“죽은 황제가 파괴된 제국 위로 쓰러졌다.
 나폴레옹은 버드나무 아래 잠들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극에서 극으로
 폭군을 잊고, 영웅을 그리워한다.
 폭군들을 이마에 새기고 있는 시인들은
 생각에 잠겨 이 쓰러진 저명인을 달랜다.”¹³⁾

위고는 자신의 세계주의를 실현할 정치 체제로 범세계적인 공화국을 제안했다. 이는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인 정치 체제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적인 의회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이것만이 인류가 모든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¹⁴⁾ 폭력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모아 유토피아적 미래를 건설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았다.

위고는 세계주의라는 비전만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델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혁명 이후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사회계약이란 장 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설파한 이래 프랑스 대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이다.¹⁵⁾ 루소는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왜 어디에서나 속박당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되는 이 책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인간은 누구에게도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개인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동의되어 질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계약 당사자인 개인의 이익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사회계약은 모든 인간은 공평하며, 주권은 민주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있기에 국가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다수결의 일반의지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¹⁶⁾

위고는 범세계적 공화국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했다. 그는 평화로운 세계는 모든 국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세계적 공화제의 창설로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국가의 이익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위고의 범세계적인 공화국 역시 개별 국가의 주권 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개별 국가들은 공평하며, 주권은 모든 국가에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결정된 다수결의 일반의지에 따라 범세계적인 공화국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에 대한 제한 역시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동의되어 질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듯 위고가 주창한 범세계적인 공화국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고의 세계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의 세계주의 혹은 반국가주의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V. 국가 정체성과 주권

위고는 사회계약 모델에 따라 모든 국가들도 각자의 특수성과 개성을 간직한 채로 범세계적인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 아래 평화적으로 융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849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 평화 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세계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세계적인 평화, 서로 서로 공통의 유대관계로 연결된 모든 국가들, 전쟁을 대체한 중재, 이러한 경건한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인가? 이러한 신성한 사상은 실현 가능한 사상인가? 오늘날 말하는 소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낡은 정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업무처리의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대답한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¹⁷⁾

위고는 민주주의 체제의 보통선거를 통해서 프랑스의 모든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집단들이 하나로 용해되어 프랑스를 평화롭게 했듯이, 모든 유럽 국가들도 보통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서 유럽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초국가적인 정치 체제의 출현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통선거와 유럽의회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공화국의 창설을 제안했다.

“노르망디, 브르타뉴, 부르고뉴, 로렌, 알자스가 프랑스에 융합되었듯,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당신들 모두가 당신들의 서로 다른 특수성과 명예로운 개성을 잃지 않고, 상위의 통합 안에서 긴밀하게 융합되고, 당신들이 유럽의 형제애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총알과 포탄이 투표로, 국민의 보통선거로, 유럽의 위대한 최고 상원의 존엄한 조정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¹⁸⁾

위고가 유럽 각국들이 서로 다른 특수성과 개성을 간직한 채로 형제애에 입각하여 유럽합중국에 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모든 국가들의 특수성과 개성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의 신념이었던 개인이나 국가의 특수성이나 개성의 동등성과 대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개인이나 국가의 특수성이나 개성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낭만주의자였다.

유럽합중국 건설의 꿈을 피력한 이후 위고는 다음 단계로 유럽공화국과 미합중국과의 연합을 주장했다. 그는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 참석할 프랑스 대표단에게 유럽과 미국의 형제애의 전령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설교했다.

“미래가 지금 보인다. 미래는 하나의 그리고 평화로운 민주주의이다.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의 우리 대표들이여, 당신들은 20세기가 보게 될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의 동침이라는 이 황홀한 사건을 우리의 면전에서 준비한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이여 가라, 신대륙에게 구대륙은 아직 젊다고 말하러 가라. 당

신들은 형제애의 전령이다.”¹⁹⁾

이렇듯 위고는 세계주의에 입각하여 두 대륙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연합체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융합되기를 열망했다. 그렇다고 그가 유럽중심주의적 혹은 미국중심주의적 확산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진정한 세계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범세계적인 공화국에서 모든 국가의 주권 표명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²⁰⁾ 그가 구체제에 기반 한 절대왕정과 국가의 주권을 부정하는 독재정치를 비난하면서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벌어진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등의 독립투쟁을 고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깊은 증오심으로 독재를 싫어한다.
또한 내가 세상의 여러 곳에서,
무자비한 하늘 아래에서, 위협적인 왕 아래에서,
참수당하는 한 민족이 호소하고 울부짖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모국인 그리스가 파괴되어 죽어갈 때,
피 흘리는 아일랜드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둘 때...”²¹⁾

위고는 평화주의자였지만 주권 탄압을 통한 평화는 반대했다. 왜냐하면 평화란 정당할 때에만 실제적이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당한 평화란 오직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자유 수호는 모든 국가의 주권을 위한 투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엄격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고는 가리발디의 이탈리아 독립 투쟁을 찬양하며 지지했다.

“가리발디. 가리발디가 무엇인가? 군대가 있는가? 없다. 한줌의 의지만이 있다. 군수품이 있는가? 없다. 화약은? 겨우 한통이 있다. 대포는? 적의 것이 있다.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하는가? 누가 그와 함께 하는가? 국민의 영혼이다... 내말을 경청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 황홀한 비전을 존중하는가? 자유 이탈리아! 자유! 타란틴 만에서 생 마르크스의 석호까지... 이탈리아는 존재한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다. 지리적 경계가 존재했던 그곳에 하나의 국가가 있다.”²²⁾

위고에게 모든 국가의 독립은 세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고는 비록 평화주의자였지만 인본주의적인 세계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식민지 국가들이 제국들과 벌이는 독립전쟁을 옹호했으며,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투쟁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는 1870년 스페인 제국에 대항하여 투쟁을 시작한 쿠바의 반식민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쿠바의 폭도라고 불리는 그들이 내게 성명을 요구합니다. 그 성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과 쿠바의 충돌에서 폭도는 스페인입니다. 마찬가지로 1851년의 투쟁에서도 폭도는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는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정의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모국이라고 말하 다니요! 모국은 어떤 권리도 없지 않나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에 손톱을 세울 권리는 없습니다. 지브롤터에 대한 영국보다도 더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권리는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보다 한 국가에 행한 범죄는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²³⁾

위고에게 범세계적인 공화국을 통한 세계주의의 실현이라는 이상 표명과 국가 수호를 위한 식민지 국가들의 제국에 대한 항전 지지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괴리도 없었다. 그는 자유 수호라는 미명 아래 비합법적인 합병과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듯 권리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세계주의와 국가들 간의 형제애에 입각한 위고의 인본주의적인 세계주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V. 결론

빅토르 위고가 살았던 19세기는 정치적, 사회적인 격변기였다. 동시대를 살았던 파르나스와 상징주의의 시인들은 의도적으로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여 형이상학적인 문학세계에 몰두했다. 그러나 위고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명하면서

현실 참여적인 문학세계를 추구했다. 그는 스스로를 독재에 저항하는 전사로, 세계주의자로, 미래의 예언자로 자각했고, 이러한 자각은 평생 동안 그의 삶과 문학을 이끌어간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었다. 인본주의적 인권 투쟁을 전개했던 위고는 끊임없이 인류애와 세계주의를 설파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을 노래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 왔다.

위고는 인류의 유토피아적 미래를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과 인본주의적인 세계주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상주의적인 비전만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실현할 정치 체제로 범세계적인 공화제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범세계적 공화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들의 집합체로, 유럽중심주의적인 식민주의가 아니라 형제애에 입각한 인본주의적인 정치 체제였다. 그리고 대혁명 이후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 모델이 여기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범세계적인 공화국은 개별 국가의 주권 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는 모든 국가들도 각자의 특수성과 개성을 간직한 채로 범세계적인 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 아래 평화적으로 융합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것만이 인류가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모아 인류의 유토피아적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위고의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세계주의는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elles(croyances) tendent mieux que les lois elles-mêmes à conduire la foule à la vertu. Et quel homme sensé peut en douter? A force de déclamer contre la superstition, on finira par ouvrir la voie à tous les crimes.” Chateaubriand, F. 『Le Génie du Christianisme』(Paris: Gallimard, 1978), 891.

2) “Ses idées générales de 1822 à 1830(Odes, Préfaces, Journal... d'un jacobite dans Littérature et philosophie) sont celles de Chateaubriand.” Faguet, E. 『Dix-Neuvième siècle』(Paris: Boivin & Cie, 1887), 183.

3) “Quelques purs amants de l'art écartent cette formule, l'art pour le progrès, le Beau Utile, craignant que l'utile ne déforme le beau. Ils tremblent de voir les bras de la muse se terminer en mains de servante. Selon eux, l'idéal peut gauchir dans trop de contact avec la

réalité. Il sont inquiets pour sublime s'il descend jusqu'à l'humanité. Ah! Ils se trompent. L'utile, loin de circonscrire le sublime, le garantit. L'application du sublime aux choses humaines produit des chefs d'oeuvres inattendus. L'art, c'est l'azur. Oui, l'art, c'est l'azur; mais l'azur du haut duquel tombe le rayon qui gonfle le blé, jaunit le maïs, arrondit la pomme, dore l'orange, sucre le raisin.”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25.

- 4) “Le poète en des jours impies
Vient préparer des jours meilleurs.
Il est l'homme des utopies.
Les pieds ici, les yeux ailleurs.
C'est lui qui sur toutes les têtes,
En tout temps, pareil aux prophètes,
Dans sa mains, où tout peut tenir,
Doit, qu'on l'insulte ou qu'on le loue,
Comme une torche qu'il secoue,
Faire flamboyer l'avenir!”
Hugo, V.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Genève: Edito-Service, 1973), 239.
- 5) “Par ces aspirations au progrès, par revendications sociales, par ces élans de bonté, de pitié, de foi ou de colère démocratiques, sa poésie prend un autre objet que le moi. Elle exprime les émotions d'un homme, mais des émotions d'ordre universelle.” Lanson, G.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Paris: Hachette, 1968), 1057.
- 6) “Voyez Lima, Cuba, Sydeney, San-Francisco,
Melbourne. Vous croyez civiliser un monde
Lorsque vous l'enfiévrez de quelque fièvre immonde,
Quand vous troublez ses lacs, miroirs d'un dieu secret,
Lorsque vous violez sa vierge, la forêt;
Quand vous chassez du bois, de l'ancre, du rivage,
votre frère aux yeux pleins de lueurs, le sauvage,
Cet enfant du soleil peint de mille couleurs...”
Hugo, V.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Genève: Edito-Service, 1973), 1312.
- 7) “Il y a cinq ans, j'ai été sur le point de devenir le favori du roi. Aujourd'hui je suis le point de devenir le favori du peuple Je ne serai pas plus ceci que je n'ai été cela, parce qu'il viendra un moment où mon indépendance fera saillie et où ma fidélité à ma conscience irritera l'un dans la rue comme elle a choqué l'Autre aux Tuileries.” Hugo, V. 『Les contemplation』(Paris: Classiques Bordas, 1966), 14.
- 8) “Dès les années 1830, Victor Hugo est convaincu que la démocratie est le régime politique idéal pour permettre l'émergence d'un Etat représentant les libertés individuelles tout en réduisant les inégalités sociales car seul le suffrage universel peut permettre aux misérables et aux exclus de faire valoir politiquement leur point de vue.”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7.
- 9) “De catholique légitimiste il est devenu libéral: mais à peine le souffle démocratique de 1830 l'a-t-il éffleuré: ses instincts humanitaires restent hésitants, suspendus, épars... En 1848, sous

- la République de Juillet, il a fera bonne figure à droite, soutenant d'abord le prince Louis Bonaparte; il viendra à l'idée républicaine et démocratique." Lanson, G.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Paris: Hachette, 1968), 960.
- 10) "Personne n'attendra de moi que j'accorde, en ce qui me concerne, un mot d'attention à la chose appelée amnistie. Dans la situation où est la France, protestation absolu, inflexible, éternelle, voilà pour moi le devoir. Fidèle à l'engagement que j'ai pris vis-à-vis de ma conscience, je partagerai jusqu'au bout l'exil de la liberté. Quand la liberté rentrera, je rentrerai." Pichois, C. 『Le Romantisme II』(Paris: Arthaud, 1979), 413.
- 11) "Il y faut rattacher surtout sa croyance au progrès humain, qui est l'optimisme sur la terre, comme le reste est optimisme général. C'est la plus claire de ses idées et la plus arrêtée." Faguet, E. 『Dix-Neuvième siècle』(Paris: Boivin & Cie, 1887), 183.
- 12) "Où va-t-il, ce navire? Il va, de jour vêtu,
 A l'avenir divin et pur, à la vertu,
 A la science qu'on voit luire,
 A la mort des fléaux, à l'oubli généreux,
 A l'abondance, au calme, au rire, à l'homme heureux;
 Il va, ce glorieux navire,
 Il va, ce gloire navire,
 Au droit, à la raison; à la fraternité,
 A la religieuse et sainte vérité
 Sans impostures et sans voiles,
 A l'amour, sur les coeurs serrant son doux lien,
 Au juste, au grand, au bon, au beau...
 Vous voyez bien,
 Qu'en effet il monte aux Etoiles."
 Hugo, V.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 721.
- 13) "L'empereur mort tomba sur l'empire détruit.
 Napoléon alla s'endormir sous la saule.
 Et les peuples, alors, de l'un à l'autre pôle,
 Oubliant le tyran, s'éprouvèrent du héros.
 Les poètes, marquant au front les rois bourreaux,
 Consolèrent, pensifs, cette gloire abattu."
 Hugo, V. 『Les Châtiments,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Paris: Classiques Bordas, 1966), 421.
- 14) "Cette République Universelle est nécessaire pour répondre aux défis posés par les inégalités mondiales. L'Existence de ces inégalités est un défi majeur pou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373.
- 15) "Liberté, Egalité, Souveraineté du peuple, les grands principes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sont affirmés dans le Contrat. Ce sera le traité politique le plus important aux yeux de beaucoup de révolutionnaires, et notamment des Jacobins." Desne, R.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Paris: Editions Sociales, 1977), 475.

- 16) “La société, les sociétés sont des associations pou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es membres qui les composent: d’où il suit que jamais gouvernement n’est légitime, s’il ne prend le bien public pour sa fonction et sa fin uniques. Ainsi tout despotisme, toute tyrannie, toute oppression sont exclues.” Lanson, G.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aris: Hachette, 1968), 794-795.
- 17) “La paix universelle, toutes nations liées entre elles d’un lien commun, la manière substituée à la guerre, cette pensée religieuse est-elle une pensée pratique? Cette idée sainte est-elle une idée réalisable? Beaucoup d’esprit positifs, comme on parle aujourd’hui, beaucoup d’hommes politiques vieillissent comme on dit, dans le maniement des affaires, répondent: Non. Moi, je réponds avec vous, je réponds sans hésiter, je réponds: Oui.”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369.
- 18) “Un jour viendra où vous France, vous Russie, vous Angleterre, vous Allemagne, vous toutes sans perdre vos qualités distinctes et votre glorieuse individualité, vous fondrez étroitement dans une unité supérieure; et vous constituerez la fraternité européenne, absolument comme la Normandie, la Bretagne, la Bourgogne, la Lorraine, l’Alsace se sont fondues dans la France. Un jour viendra où les boulets et les bombes seront remplacés par les votes, par le suffrage universel des peuples, par le vénérable arbitrage d’un grand sénat souverain qui sera à l’Europe.”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370.
- 19) “L’avenir est à présent visible. Il appartient à la démocratie une et pacifique; et vous, nos délégués à l’Exposition de Philadelphie, vous ébouchez sous nos yeux ce fait superbe que vingtième siècle verra: l’embrassement des Etats-Unis d’Amérique et des Etats-Unis d’Europe. Allez, travailleurs de France, allez dire au nouveau monde que le vieux monde est encore jeune? Vous êtes les ambassadeurs de la fraternité.”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372.
- 20) “Ainsi, pour Victor Hugo, l’affirmation du droit des nationalités est une condition sine qua non à l’établissement de la République Universelle qui doit constituer le dernier mot du progrès humaine.”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413.
- 21) “Je hais l’oppression d’une haine profonde.
Aussi, lorsque j’entends, dans quelque coin du monde,
Sous un ciel inclément, sous un roi meurtrier,
Un peuple qu’on égorge appeler et crier;
La Grèce, notre mère, agonise éventrée;
Quand l’Irlande saignante expire sur sa croix...”
Hugo, V.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Genève: Editio-Service, 1973), 542.
- 22) “Garibaldi. Qu’est-ce que Garibaldi? A-t-il une armée? Non. Une Poignée de volontaire. Des munitions de guerre? Point. De la poudre? Quelques barils à peine. Des canons? Ceux de l’ennemi. Qu’est-ce qui le fait vaincre? Qu’a-t-il avec lui? L’âme des peuples. Vous qui m’écoutez, vous la représentez-vous, cette vision splendide? L’Italie libre! libre! libre du Golfe de Tarente aux lagunes de Saint-Marc... L’Italie existe. L’Italie est l’Italie. Où il y

avait un terme géographique, il y a une nation.”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410.

- 23) “Ceux qu'on appelle les insurgés Cuba me demandent une déclaration, la voici: Dans ce conflit entre l'Espagne et Cuba, l'insurgée c'est l'Espagne. De même que dans la lutte de décembre 1851, l'insurgé c'était Bonaparte. Je ne regarde pas où est la force, je regarde où est la justice. Mais, dit-on, la mère patrie! Est-ce que la mère patrie n'a pas un droit? Aucune nation n'a le droit de poser son ongle sur un autre nation; pas plus l'Espagne sur Cuba que l'Angleterre sur Gibraltar. Un peuple ne possède pas plus un autre peuple qu'un homme ne possède un autre homme. Le crime est plus odieux encore sur une nation que sur un individu; Voilà tout.”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413-414.

References

- Albouy, P. 『La Création mythologique chez Victor Hugo』, Paris: Corti, 1963.
- Albui, P. 『La creassion mytologic swe Victor Wigo』, Paris: korti, 1963.
- Barrère, J. B. 『Hugo: l'Homme et l'Oeuvre』, Paris: Boivin, 1952. Barrer, J. B. 『Wigo: lom e lwevr』, Paris: Bwaveng, 1952.
- Bertrand, L. 『La fin du classicisme et le retour à l'antique』, Paris: Fayard & Cie, 1956. Bertrang, L. 『la feng dwi classicism e leu reutur a langtik』, Paris: Feiar & Cie, 1956.
- Baudouin, Ch. 『Psychanalyse de Victor Hugo』, Paris: Colin, 1972. Budueng, Ch. 『Psykanalys deu Victor Wigo』, Paris: Coleng, 1972.
- Cellier, L. 『L'Épopée romantique』, Paris: PUF, 1954. Cellier, L. 『lelope Romantick』, Paris: PUF, 1954.
- Chateaubriand, F. 『Le Génie du Christianisme』, Paris: Gallimard, 1978. Shatobriang, F. 『Leu Geni dwi Christianism』, Paris: Gallimar, 1978.
- Desne, R.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Paris: Editions Sociales, 1977. Desn R. 『Istwar Litterer deu la Frangs』, Paris: Edission Social, 1977.
- Didier, B. 『La Littérature française sous le Consulat et l'Empire』, Paris: PUF, 1992. Didier, B. 『La litteratwir frangses su leu Congswila e lengpir』, Paris: PUF, 1992.
- Gely, C. 『Poète de l'intimité』, Paris: Niwet, 1969. Gely, C. 『Poet deu lengtimité』, Paris: Niwe, 1969.
- Gautier, Th. 『Albertus ou l'âme et le péché』, Paris: Paulin, Libraire-Editeur, 1833. Gotier, Th. 『Albertu u lam e leu peshe』, Paris: Poleng, Librer-Editoer, 1833.
- Gregh, F. 『Portrait de la Poésie française au XIXe siècle』, Paris: Delagrave, 1936. Greg, F. 『Portre deu la Poesi frangses o XXe siecle』, Paris: Delagrav, 1936.
- Guillemin, H. 『Victor Hugo par lui-même』, Paris: Seuil, 1967. Gwieumeng, H. 『Victor Wigo par lwi-mem』, Paris: Swei, 1967.
- Faguet, E. 『Dix-Neuvième siècle』, Paris: Boivin & Cie, 1887. Fague, E.

- 『Dis-Noeviem』, Paris: Bwaveng & Cie, 1887.
- Hugo, V. 『Les contemplations』, Paris: Classiques Bordas, 1966. Wigo, V. 『Le Contangplassion』, Paris: Classic Borda, 1966.
- _____. 『Oeuvres poétiques complètes』, Genève: Edito-Service, 1973. Wigo, V. 『Oevr poetic congple』, Genev: Edito-Servis, 1973.
- Lanson, G.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aris: Hachette, 1968. Langsong, G. 『Istwar deu la Litteratwir frangses』, Paris: ashet, 1968.
- Meschonnic, H. 『Pour la poétique IV, Ecrire Hugo』, Paris: Gallimard, 1977. Meshonnic, H. 『Pur la poetic IV, edir Wigo』, Paris: Gallimar, 1977.
- Melka, P. 『Hugo: Un combat pour les opprimés』, Paris: La Compagnie Littéraire, 2008. Melka, P. 『Wigo: eng congba pur le opprime』, Paris: La Congpagni Litterer, 2008.
- Pichois, C. 『Le Romantisme II』, Paris: Arthaud, 1979. Pishwa, C. 『Leu Romantism II』, Paris: Arto, 1979.
- Savey-Casard, P. 『Le Crime et la peine dans l'oeuvre de Victor Hugo』, Paris: Corti, 1963. Savei-Casar, P. 『Leu Crim e la ppen dang loevr deu Victor Wigo』, Paris: korti, 1963.
- Van Tieghem, P. 『Le romantisme dans la littérature européenne』, Paris: Michel, 1969. Vang Tiegem, P. 『Leu Romantism dang la litteratwir europeen』, Paris: mishel, 1969.

E-mail: sanho@cau.ac.kr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13. 08. 12

심사일자 : 2013. 09. 11

게재일자 : 2013. 09. 24

